

여성계 올해 핵심사업 결정

여협 - 여성정책 실행여부 감시, 환경·소비자 사업 전개

여연 - 성폭력 추방사업, 지역여성운동 활성화

우리나라 여성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회(회장 조화순)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오)는 지난 연말 각각 올해의 주요 사업 방향을 담은 <93년도 중점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여성계의 핵심쟁점은 성폭력특별법 제정, 여성정치세력화, 여성고용불안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성노동 이슈 등 정치, 노동, 법분야 등 10여가지로 압축된다. 특히 여연과 여협이 각각 계획중인 사업에는 △성폭력방지를 위한 성폭력특별법 제정문제 △환경문제 △여성정

치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이 모두 포함돼 세부 실천방향에서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이들 3가지 쟁점에 모아질 전체 여성계의 힘과 관심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협과 여연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사업계획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해 각종 여론 압력활동과 아울러 홍보책자발간 등을 통한 성폭력 추방사업 △군축과제로서 방위비삭감을 통해 여성복지분야 확대 여론화 및 여성의 관점에서 통일정책을 마련하고 통독의 사례에 비춰 토크 이후의 여성

문제에 대비할 연구작업 △90년부터 심각한 문제가 된 임시직, 시간직 등 비정규고용문제를 제기해 노조와 연대, 여성고용불안정을 해소할 제도적 대안 강구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환경문제 이슈를 개발, 그 대책을 위한 연구작업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직적 방안으로 생협, 탁아소, 공부방 등을 매개로 한 지역여성운동 활성화 △정신대문제 및 주한미군의 윤금이 살해사건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 사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정치참여확대사업으로 총선·대선으로 고조된 여성정치이슈의 화두 공약으로 110

여성정책 실행여부를 촉구하고 감시한다. △성폭력 예방책을 마련하면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계활동 △근로여성지위향상 사업으로 근로여성고발창구 운영, 여성차별정년승진·배치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 △여성에 대한 편견을 시정하는 노력으로 매스컴에 나타난 여성상 모니터링을 통해 관계기관에 건의, 시정사업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발생억제 등 환경문제, 소비자보호사업 전개 △협의회에 걸맞는 단체인 유대 강화를 위한 회원단체 지원육성 △남북여성교류사업으로 북한과의 여성관련자료 교환을 추진한다